

# 코오피와 최면약

구성·연출. 서현석

2021. 9. 24. - 10. 3.

서울로7017 및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공연 경험의 양상은 꾸준히 변화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을 기점으로,

기존 형식에서 확장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실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코오피와 최면약>은 극장 공간에서 벗어나,

기술 접목을 통해 관객이 직접 이동하며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학과 연극, 사운드, 가상현실이 혼합된

장소특정형·관객참여형 프로젝트로서

서울로 일대를 걷는 발걸음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코오피와 최면약> 관객만족도조사

- QR코드를 스캔하여 관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관객만족도조사는 공연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서현석 구성·연출

서현석은 영상과 퍼포먼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공간과 감각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테로토피아>, <영혼매춘>, <무대공포>, <매정하게도 가을바람>, <천사 - 유보된 제목>, <미완의 폐허> 등 장소기반의 퍼포먼스 및 전시를 통해 '작품' 및 체험의 경계를 질문하는 형식을 실험해왔다. 아시아에서의 국가 형성과 모더니즘 건축의 관계를 탐색하는 영상 작품들을 만들고 있으며, 그 초기 작업들을 광주비엔날레(2011, 2018), 베니스건축비엔날레(2014, 2018), DMZ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2019) 등에서 선보였다. 『미래 예술』과 『Horror to the Extreme: Changing Boundaries in Asian Cinema』를 공동으로 썼고, 비정기 간행물 『옴.신』을 내고 있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 “사람은빛보다빠르게달아나면사람은빛을보는가”

(이상, 「선에관한각서5」)

젊은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빛을 바라보면 빛의 입자가 보이겠냐는 질문에 사로잡혔다. 이 사소한 상상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상대성 이론의 단초가 되었다. 1905년과 1915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상대성 이론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모든 현상들의 배경에 놓인 것으로 뉴턴이 전제했었던 절대적 시간과 공간을 폐기했다. 시간은 중력에 따라 공간과 엮여 변형되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물질의 시간은 그것을 관찰하는 외부의 관찰자의 시간과 다르게 진행된다.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질량을 가진 물질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사람은 빛보다 빠르게 달아날 수가 없고, 따라서 빛을 절대 볼 수 없다.)

젊은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은 이상이 1931년에 일본어로 작성한 시 「삼차각설계도」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이상은 경술국치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910년 9월 23일에 태어났다. 근대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서, 인생 대부분을 경성에서 살면서도 마치 망원경을 들여다보듯 멀리 세상을 내다봤다. 괴테와 도스토옙스키를 섭렵했고 (김기림의 회상에 따르면) 살바도르 달리와 르네 클레르에 탐닉했다. 그리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최초로?) 20세기의 세계인으로서는 동시대에 접속했고, 동시에 근대의 허울을 보며 조소했다. 육체는 식민지 조선에 속박되었을지언정, 정신은 그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서구 과학자들의 눈을 빌려 넓은 우주를 봤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은 이상의 시간을 선형적인 역사와 일상의 궤적으로부터 이탈시킨다. 이상의 탈규범적 상상은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을 따라 빛과 시간의 관계를 가로지르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암시하는 우주의 팽창에까지 미친다.

# “확대하는우주를우려하는자여,과거에살으라, 빛보다도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이상, 「선에관한각서5」)

이상은 과학적 사유를 포용한 진정한 ‘융복합’ 예술가다. 그의 시는 정서나 사상을 ‘전달’하는 대신 사유와 우주를 ‘구조’로 나타낸다. 우주 스케일의 상상은 속세의 잡다한 감정 및 인간 존재 자체를 소소하게 만든다.

몸으로 접속하는 연극 <코오피와 최면약>은 이상의 사유를 따라 경성역과 확대하는 우주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식민 경성 못지않은 억압과 폭력성이 산재하는 도시의 타성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 이상이 꿈꿨던 ‘빛’을 따라가 본다.

## 만드는 사람들

구성·연출 **서현석**

UR제작 **엑스와이제트 브이알**

대표 **김은지** 제작총괄 **전봉찬**

음악·음향 **하상철**

UR출연 **박정인 지명 강동협 석경목 이인서 이해성**

내레이션 **성수민 우진**

장소협조 **서울로 7017**

UR촬영진행 **곽서영**

분장 **백지영**

분장진행 **조은혜**

배우에이전시 **J&K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대운**

텍스트 출처

이상, 「삼차각설계도」 (1931)

이상, 「1933, 6, 1」 (1933)

이상, 「오감도」 (1934)

이상, 「날개」 (1936)

이상, 「권태」 (1937)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특수 및 일반 이론』 (1920)

에르빈 슈레딩거, 『정신과 물질』 (1958)

무대제작감독 **경은주**

조명감독 **류선영**

조명진행 **박기완**

의상감독 **박지수**

의상진행 **허정윤**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최윤영**

마케팅 **박보영**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승이**

인턴 **노소연**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기록사진 **나승열**

기록영상 **형주성**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이너 **스튜디오 봄봄**

옥외광고 **영기획**

팜플렛 인쇄 **미림아트**

티켓 **이현아**

매표안내원 **김경은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민경 임지은 송솔 황지수**

**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주는 김나연**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서울로현장진행

**고찬하 구도연 김보연 박서연 박예지**

**박주는 손윤희 송솔 유연지 이민경**

**이신영 이유진 이지은 임예은 채지성**

**하라영 한현지 홍정선**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이정민**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